

보도시점 2024.1.15.(월) 배포 2024.1.15.(월) 10:00

【2024년 행복청 정책 돋보기】

행복도시 교통체계 개선 ‘시민체감도’ 높다

-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등 여건변화 반영한 교통체계 개선 본격화
- 승용차 교통량 감소를 위한 기반 시설 개선, 각종 홍보 등

행복청(청장 김형렬)은 올해부터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이 입지하는 세종동(에스(s)-1생활권)의 미래 교통수요에 대비하고 인근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. 행복청 관계자에 따르면, 지난해 11월 수립한 ‘행복도시 내부교통체계 개선방안’을 토대로 금년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갈매로와 금남교 차로 확충, 중앙공원 내 96호선 도로의 선형 변경과 일부 입체화, 절재로·임난수로를 지나는 ‘열십자(十)’자형 신규 비알티(BRT) 노선 및 전용도로 설치 등 세부사업의 설계에 들어갈 방침이다.

국회세종의사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금강 횡단교량 추가 설치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. 행복청은 금년 정부예산에 반영된 1억 원의 연구용역비로 상반기 중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. 교통흐름의 효율을 높이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교량의 적정위치와 규모 등 사업계획을 마련하고, 경제성 분석 등을 위해서다.

한편, 승용차 교통량 감축과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. 행복청은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를 확충하고 신호체계를 개선해나가는 한편, 세종시·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홍보 활동 등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. 신성현 교통계획과장은 “자전거, 도보 등 비승용차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도로정체 개선, 환경오염 저감 등은 물론, 건강증진과 교통비 절약 등 시민 개개인에게도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”이라면서 “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.”라고 당부했다.

담당 부서	시설사업국 교통계획과	책임자	과 장	신성현 (044-200-3280)
		담당자	사무관	이지현 (044-200-3281)